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에는 왜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은 “무엇인가 확실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히브리어입니다. 미사와 전례에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렇습니다”라는 동의의 표시입니다.

특히 미사 중에 사용하는 ‘아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본기도와 예물 기도 그리고 영성체 후 기도 끝에 신자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신자들이 사제의 기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의 끝 부분에서 마침 영광송을 사제가 바친 후에 신자들이 ‘아멘’이라고 답을 하는데요. 이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의 영광송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감사기도 전체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며 성체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한마디로 ‘아멘’은 기도를 마감하는 결구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동의를 드러내는 신앙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그 자체로 마감되지 않고 사제의 기도문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까닭에 신자들은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라는 찬미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때문에 미사 중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 후에는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2012년 SK STORY 인기 콘텐츠 BEST 10.
타인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



| 이웃사랑 |

(잠언 3,27-35)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1 “형제에게 베푸는 것”
1,2절까지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이웃을 통해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소서.
 - 저희 안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저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을
읽어주십시오.

- 3,27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야 할 이에게 선행을 거절하지 마라.
28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네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 내일 줄 테니.” 하지 마라.

- 29 이웃이 네 곁에서 안심하고 사는데
그에게 해가 되는 악을 지어내지 마라.
30 너에게 악을 끼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공연히 다투지 마라.
31 포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길은 어떤 것이든 선택하지 마라.
32 주님께서서는 비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곧은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33 주님께서서는 악인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고
의인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리신다.
34 그분께서는 빈정대는 자들에게 빈정대시지만
가련한 이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35 지혜로운 이들은 영광을 물려받고
우둔한 자들은 수치를 짊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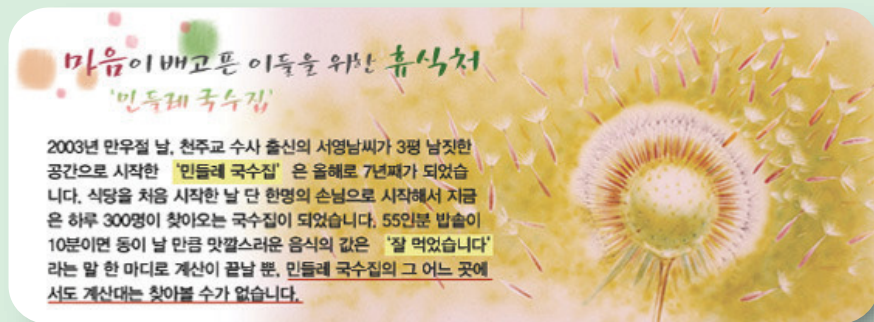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사랑할 만한 이웃사촌을 소개해 봅시다.
 - 이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이웃사촌이 되어 주어야
할 이웃을 찾아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영광을 물려받지만 우둔한 이들은 수치를 짊어진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면 자랑스러운 영광의 모습보다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더 눈에 잘 드러 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주님 보시기에 올곧은 이, 의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절대 궁핍에서는 벗어났는데 오히려 사는 것은 더 힘들다고만 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오죽 싸고 나면 조금 한 바가지 얻으려 갈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이야!' 한마디면 잠옷 바람으로 한걸음에 뛰어나와 줄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부부간에 한바탕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옆에서 한참을 하소연 들어줄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은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동네에서도 내 아이의 귀갓길은 내가 책임져야만 할, 나는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웃은 불편한 옆집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차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층간소음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옆집 사람에게 양보는 손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싸워봅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보복운전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누가 우리의 안전한 이웃인가하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답은 분명한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늘 불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혼자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실천한다면 신바람이 납니다. 우리 공동체부터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내가 사는 동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작은 변화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1장 "형제에게 베푸는 것"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남성동본당 구역분과장 허상희(골롬바)-

남성동본당은 1930년 완월동본당에서 구마산성당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발족한 후 1946년 완월동본당에서 분리되었다. 1947년 5월 마산시 남성동 160번지 소재 가옥 및 대지 180평을 매입하여 임시성당을 건립, 완월동본당 박성춘(레오) 신부가 첫미사를 봉헌한 후 1951년 7월 본당으로 설립되었다. 올해 본당설립 64주년을 맞이하는 남성동 성당은 현 교구장이신 안명옥 주교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제, 수도자를 배출한 본당으로 총 8구역 27개 반과 수정공소 중, 12개 반이 모임을 가지고 있다.

옛 마산의 중심가에 자리한 주교좌 본당이었지만 지금은 상권이전과 주거지 변동으로 신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역 특성상 구역 외 신자들이 많은 데다 평균 연령이 60~70대이다 보니 활동이 미흡하다. 그리하여 몇 해 전 10~15가구를 단위로 소공동체 반을 나누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김순곤 신부님께서서는 구역장, 반장, 부반장, 총무를 두어 4명이라도 모일 수 있게 하셨다. 반 간부들은 첫 주 수요일마다 구역장 모임에 참석하여 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6구역 미사 차례가 다가왔을 때였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난감하던 차에 다른 반 소속의 자매님이 우리 반 모임에 나오게 되어 부탁을 하였더니 당신이 속한 반의 형제님 댁에서 축복식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미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그동안 반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번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던 상황이었기에 이 기회에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 그곳에서 구역미사를 하였고, 미사 후 다과 자리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아 다음 달부터 곧바로 반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지만 첫모임에 많은 가정이 참석하여 기뻐하였고 꾸준히 모임을 이어오는 가운데 동참하는 가정들이 점차 늘어났다. 모임 후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반원들의 축일도 축하해주고 한 달 동안 하느님께 봉헌하는 성구를 집안에 붙여놓고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뜻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고, 자기 가정에서

하게 될 모임을 기쁘게 준비하

며 반 모임을 기다리는 모

습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

낄 수 있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걸

어 온 본당공동체가

소공동체모임을 통해

그 사랑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드려

본다.